

해남에 국내 최초 '영농형 태양광 민간협의회' 발족

주민 주도 1조원 사업·햇빛연금으로 지역소멸 대응 최우선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등 탄력 기대

'산이·마산 영농특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협의회가 최근 국내 최초로 발족했다.

투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지역민과 영농특화단지로 구성된 4개 농업회사법인(특화단지협의체)이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주체로 나섰다. 이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에 위치한 영산강 III-1지구 간척지의 영농특화단지 505ha(약 153만 평)에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 해남 기업도시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농지를 보전하는 영농형 방식으로 추진해 기존 농업회사법인에 영농을 지속하면서 발전수익을 농업회사법인과 지역 주민이 공유할 수 있어 식량과 에너지를 수확하는 미래 농촌의 새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단지협의체는 유기농 조사를 생산하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유기농 축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산이·마산 집적화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 유치, 주민 소득 증대 등이 가능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기후 위기 변화 대응의 최고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목표다.

지난해 8월 국내 최대 10조원 규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투자유치도 전남도가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약속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번 사업도 데이터센터 투자실현의 성공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민간협의회는 27개 인접 마을 전체 주민의 사업 추진 동의를 받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와 해남군 소속 공무원 5명, 주민대표와 특화단지협의체 16명,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집적화단지 사업 전반을 협의하고 특히, 주민 참여 확대와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과 농업회사법인에 햇빛연금으로 최대한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60KW 수준의 소규모 실증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대규모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및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게 된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40MW 초과 발전시설 설치구역이다. 연내에 전남도와 해남군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고, 2025년 단지 지정, 사업시행자 확정,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산이·마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추진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는 전남도 입장에서 든든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지역 전반으로 사업모델을 확산토록 함으로써 전남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해남 산이 태양광 집적화단지 민간협의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문학관, 교사 대상 인공지능 독서 교육 직무연수 나선다

12~18일 수강생 모집 '챗 지피티 시대 읽기·쓰기' 주제

광주문학관은 "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주문학관과 함께하는 지금 시대의 독서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교육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연수과정은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역 초·중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챗 지피티(ChatGPT) 시대의 읽기와 쓰기'

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챗 지피티(ChatGPT)를 능가하는 읽기, 챗 지피티(ChatGPT)를 능가하는 쓰기, 대안적 쓰기의 실천과 대화적 평가 등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 챗 지피티(ChatGPT)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집중 논의한다.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수업에 관심 있는 지역 초·중등 교원은 광주교육연구원 누리집(<http://eduup.gen.go.kr>)에서 직무연수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학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gilm/>)에서 확인하거나 운영팀(062-613-24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환경 발전에 맞춰 읽기와 쓰기의 교육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 15곳

전국 최다...올 상반기 8124명 배정,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진행

전남도 15개 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에 선정돼 인센티브 배정 인원을 추가 확보하고, 고용방식 다변화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대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전남에선 15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101개)의 15%를 차지했다.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지역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로 배정 인원이 주어진다. 계절근로자는 본국의 농업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돼 서류 준비 등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 빠른 입국이 가능하다. 올해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15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는 총 1153명으로, 고용주당 2명씩 추가 배정받을 경우 다가오는 농번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 상반기 배정 인원(인센티브 포함)은 8124명(기배정 5818명·인센티브 2306명)이다. 정부는 또 농번기 일손 확보를 위해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사업을 진행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방식이 다변화된다.

기존 도입 방식은 계절근로자 송출 국가의 자체 사정이 발생하면 계절근로자 도입이 적기에 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1개 국가와만 업무협약을 해 해당국의 인력 송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일 광역권 내 지자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 사항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남지역 시군별 약 체결이 완료된 8개국, 85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도내 22개 시·군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별 해외 인력송출 국가와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권의하겠다"며 "계절근로자 확대에 맞춰 시군과 함께 무단이탈 최소화 등 관리대책 강화도 적극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박차

경제 육성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등 전략 제안

전남도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제3차 전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8일 동부청사에서 개최하고 지속가능 발전 체계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보고회는 전남도와 용역수행 기관인 전남연구원,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정철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남 사회적 경제가 지금까지 직접 지원 정책의 효과로 양적성장을 이뤘으나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

고 ▲자생력 강화와 경영역량 확충 ▲경영 및 정책 환경 변화 대응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남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으로 '사람 중심 상생과 연대의 경제공동체 전남 사회적 경제 2.0'을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확산 ▲융합·협력 생태계 구축 ▲물적·제도적 기반 강화 ▲지역화, 지역문제 해결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등의 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반영사항, 전남 사회적 경제 환경을 꼼꼼히 분석해 전남의 사회적 경제를 이끌 제3차 사회적 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전남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